

"문화재단을 '컬처노믹스'의 토대로"<대경연구원>

[연합뉴스 2008-01-22 11:36]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시가 올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대구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 전담조직으로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컬처노믹스(cultunomics)'의 토대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연구원 송은정 책임연구원은 22일 '대경 CEO 브리핑' 제117호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구문화재단의 성격과 조직구성의 방향을 제시했다.

송 연구원은 "2000년부터 각 지자체에서 일어난 지역문화재단 설립 붐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며 "하지만 앞으로 문화재단은 문예진흥기금 관리 등 단순하고 일반적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지역문화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연구원은 "이를 위해 문화재단이 독립성과 전문성, 효율성을 갖춘 문화예술진흥 전담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며 문화(culture)와 경제(economics)의 합성어인 '컬처노믹스(cultunomics)'의 토대로 '문화예술을 통해 대구 살리기'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연구원은 지역의 문화적 특성과 시대 흐름에 적합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지자체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대구문화재단설립준비위원회'(가칭)를 설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한편 대구시는 내달 대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를 공고하고 상반기 중 정관을 확정된 뒤 기본자산 185억원, 운영인력 10명 규모의 문화예술진흥 전담기구를 설치해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토록 할 예정이다.

mshan@yna.co.kr

(끝)

주소창에 '속보'치고 연합뉴스 속보 바로 확인

[<모바일로 보는 연합뉴스 7070+Nate/magic@/show/ez-i>](#)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이 기사 주소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1932568